

□ 홀트아동복지회 노조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봉사와 희생’ 앞세운 노동자 죽이기

노동운동은 고용자측의 부당한 요구와 일방적 경영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 때마다 노사의 대립은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특수한 일종에 있어서 노사의 대립은 또한 특수한 형태를 띠기도 한다. 사회봉사기구에서 ‘봉사와 희생’을 앞세워 노조를 부인한다면 이는 노동탄압인가. 정당한 처사인가 라는 문제는 여러 사회봉사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노조의 규모가 가장 큰 홀트아동복지회 노동조합을 찾아 가보았다. (편집자)



▲1월17일 성회장 집앞에서의 시위장면

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받았다.’라는 판결을 냈고 이번 달 4일에는 노동부 산하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성회장의 노조탄압 증거를 확보해 성회장을 입건조치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입건일인 12일 성회장은 출두를 거부했고 2차 입건일이 다시금 통보되어있는 상태이다.

노사간 상호인정의 중요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던 보건복지부에선 ‘성회장 취임 후 집체된 홀트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일축하며 ‘내부 문제는 자체해결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 밝혔다. 이에 대해 홀트노조와 애바다복지회 노동조합 등 사회봉사기관 6개단체 노동조합은 이번 달 12

사측, 회사 특성상 노조활동 불가 입장 교수 조직적 대응위해 사회복지 단일노조 필요

지난 해 국회에서 날치기되었던 노동법이 여야합의로 재개정작업을 거쳐 결국 타결이 났다. 타결안에 대해 노동계는 수긍하지 않고 있으며 다시금 파업을 시도할 것으로 비쳐진다. 날치기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은 사회적 신드롬을 낳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류에 묻혀 사회의 이면에 계속 표류하는 또다른 노사문제가 있다. 바로 사회봉사기관의 노사문제다.

조합원 일방적 발령

홀트 아동복지회는 국내의 입양과 아동복지, 탁아사업, 종합사회 복지관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있다. 사원들은 입양아를 입양자에게 알선을 해주고 여러 입양 상담을 받는 등 직접적인 사회봉사를 하고있다. 그러나 홀트 아동복지회에 새로 회장이 부임하고 나서 홀트 노동조합은 회장으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으로 성기범씨가 새로 취임했다. 성회장은 취임 후 노조 조합원들에게 ‘봉사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선 임금협상, 근로조건개선등을 위해 존재하는 노조가 있을 수 없다.’며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누구든 지방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지령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부당한 요구라며 맞섰지만 성회장은 조합원 44명을 지방으로 발령냈다. 노조 간부 9명을 제외한 조합원들은 비교적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일산동지로 발령을 냈으나 노조간부들은 부산, 광주 등으로 발령을 냈다. 조합원들은 ‘노조와해작업이 명확하다’며 지방발령을 거부하자 성회장은

회사 징계위원회에 이들을 회부했다.

성회장의 이러한 노조탈퇴강요로 인해 조합원 수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노조측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 전임자를 일방적으로 발령했다.’며 성회장과 대화를 요구했으나 성회장은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했다. 노조는 즉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1월 15일 지방노동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및 각 정당에 진정서를 제출해 실사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측은 수차례 성회장 자택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1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회사내에서 발령 취소와 노조인정등을 위한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달 5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선 ‘홀트아동복지회 노동조합은 회장으로

세시봉

이택근 문화부장

참교육, 그외에 무엇을 바라리오

우리나라 학생들이 올해에도 수학부과 과학분야에서 세계정상을 차지하였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왜일까? 지금 이 인재들이 사회에서 고숙 승진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명예퇴직의 주인공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제하고 복직한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입시위주 교육개선 등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나름대로는 불법단위로 활동하며 일선교사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과 교사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이해를 담지 못했던 점들을 반성하고 있다.

이 인재를 만든 것은 현교육제도이다. 정부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교육제도를 수정했지만,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러한 교육제도를 고치기 위해 참교육을 외치는 교사들의 모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다.

전교조 2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조직 합법화’투쟁에 나서자 안영배 교육부 장관의 담화를 통해 “관련자를 모조리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문제가 이렇게 9년의 시간을 끈 이유는 89년 3당 합당 합의안이 폐기된 이후 이렇다할 국민의 수렴도 없이 방치한 것이 큰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달 전교조가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 2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조직 합법화’투쟁에 나서자 안영배 교육부 장관의 담화를 통해 “관련자를 모조리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문제가 이렇게 9년의 시간을 끈 이유는 89년 3당 합당 합의안이 폐기된 이후 이렇다할 국민의 수렴도 없이 방치한 것이 큰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단신

세계청소년환경회의의 자원봉사자 모집
세계환경운동단체인 UNEP의 한국위원회에선 오는 6월 3일부터 8일사이에 진행될 ‘UNEP 세계청소년환경회의’의 행사진행과 관련,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기간은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다. 문의: (02)723-3627

정치학교 개강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에서 주최하는 ‘제 30기 정치학교’가 이 달 1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열린다. 수강비는 4만원이다. 문의: (02)928-2051~2

고대 ‘교수인센티브제’ 도입
고려대는 연구와 교육, 봉사활동이 뛰어난 교수를 매년 20에서 25명가량 선정, 연구장려비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올해 부터 실시키로 했다. 해당교수는 계열별로 4에서 5명을 선정하여 연구장려비금으로 1천만원가량이 지급된다.

풍물, 탈춤 강습회
풍물, 탈춤 강습회가 출매사랑주최로 오는 18일부터 풍물강습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탈춤강습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열린다. 문의: (02)467-7632

여성대상 인터넷교육
‘여성에게 인터넷을’이란 주제의 여성정보화 교육이 한국여성정보원 주최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한국정보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열리며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문의: (02)706-6761~4

13개 대학 시간제등록 실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회인이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하여 정규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시간제 등록제가 우리학교를 비롯, 세종대, 단국대, 전남대 등 13개 대학에서 실시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은 야간에 한해서만 시행한다.

성대 기업형 경영기법 도입
성대는 대학경영에 예산 집행에 대한 부서별 전권 위임, 학생들에 대한 전체원원업무를 수행하는등의 것을 골자로한 ‘기업형 경영기법’을 도입하기로 지난 11일 발표했다.

□ 홀트아동복지회 이수연 노조위원장

인터뷰

“우린 봉사자 이기 전에 사회복지 전문가”



올 해 홀트아동복지회에 12년째 근무 중인 이수연씨는 성회장측의 부당한 노동행위 강요에 맞서 최일선에서 노조를 이끌고 있다. 노조원 수가 반으로 줄어든 지금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수연씨를 만나보았다. -사회복지기관 근무자를 ‘봉사자’로 보는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봉사자 이기전에 직장인이 다. 일정한 월급을 받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라 생각한다. 만약 이런곳에서 순수한 봉사자들인 자원봉사자로 모든인력을 대체한다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우수한 전문가들은 좀처럼 들어오지 않을것이다.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사정은 어떠한가.

=다른 곳은 노조탄압 이전에 더욱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장애인 보호시설인 애바다복지회는 회장이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을 강제노역시키는 등의 비리를 서슴없이 저질러 물의를 일으켰다. 이밖에도 삼육재활원, 향림원 같은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들이 고위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회장도 취임 이전에는 ‘나라사랑운동 실천본부’에 간부를 맡았던 정치권 인사였다. 이런 비전문가들이 위로부터 낙하산식 발령이 나서서 문제는 시작된다고 본다.

-사회봉사 단일노조건설은 왜 필요하다 보는가. =사회봉사기구 근무자들은 낮은 임금과 낙후된 시설에서 근무하고있다. 또한 스스로 노동자라기 보단 사회봉사전문가라 생각하기때문에 노동자의식이 고취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률이 높기때문에 노조구성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성회장의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등 치밀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며 각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투쟁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또한 전문노련과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도 준비중이다.

(김동욱 기자)

正道경영·초우량 LG

화학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간의 삶. 더 질서는 나라. 화학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화학강국이 미래강국

첨단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은 화학- 화학이 앞선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21세기 화학강국으로! LG화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 바이오텍** 유전공학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생장호르몬, 제4세대 항생제 등 첨단의학 신물질개발
- 정보전자소재** 고도의 기술집약 연구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술소재 등 개발
- 석유화학** 석유화학 범용수지 및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고기능 신소재 개발
- 정밀화학**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 생활건강**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

LG화학·LG석유화학·LG실트론·LG엘라이드시그널·LG오앤스코닝·LG MMA